

들불야학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 연구*

장은영**

-차 례-

1. 들불야학과 문집 『들불』의 의미
2.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
3. 수치심을 넘어 고통을 말하는 주체로
4.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로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들불야학의 문집 『들불』에 수록된 여성 노동자의 글쓰기를 자기서사라는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1978년 광주에서 문을 연 들불야학은 광주 최초의 노동야학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투사회보>를 제작하여 광주 시민들에게 유포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야학에 다니던 노동자들의 글이 수록된 문집 『들불』은 당시 노동자들의 인식변화와 사회 참여 계기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는 3호까지 발행된 『들불』에 수록된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를 매개로 그들이 윤리적, 정치적 주체로 변화해가는 계기와 과정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계급적, 성적 차별의 대상이었다. 학벌주의 사회에서 배움이 부족한 그들은 못 배우고 열등한 존재로 재현되었는데,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며 수치심을 느꼈고 그로 인한 고통을 글로 표출했다. 그러나 그들은 야학생들과 글쓰기를 계기로 자신이 느낀 수치심이 부당한 감정임을 자각해나간다. ‘공순이’라는 호명을 거부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던 그들은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비판하며 배움을 통해 그들이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들불』을 통해 살펴본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는 1970년대 노동자 글쓰기 연구가 강조해온 계급적 이념이나 노동해방에 대한 열망을 담은 글이라기보다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한 공통적 감정인 수치심을 공적 언어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을 포착하고 언어화하며 대면함으로써 수치심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수치심을 환기하는 글쓰기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수치심의 기원이 사회적 차별에 있음을 발견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자신이 느낀 수치심을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전환하고 정의와 평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주체로서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들불야학, 『들불』, 노동야학, 여성 노동자, 공순이, 자기서사, 수치심, 평등

1. 들불야학과 문집 『들불』의 의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전국에는 100여 개 이상의 노동야학이 문을 열었다.¹⁾ 한국의 산업화 시기는 달리 말하면 노동야학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광주에서 개교한 이 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은 수평적 사제 관계를 지향하는 강학²⁾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지닌 학강(학생) 그리고 인근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던 노동과 생활의 공동체였다. 이 논문은 들불야학에서 펴낸 문집 『들불』³⁾에 수록된 여성 노동자의 글쓰기를 자기서사라는 맥락에서 분석해보고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1978년 5월부터 전남대학교 학생 박기순⁴⁾은 광주에서 노동야학을

-
- 1) 김한수, 『노동야학, 해방의 밤을 꿈꾸다』, 따비, 2018, 28~30면.
 - 2) ‘강학’은 배우고 가르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문집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과 인간이 상호 주체적인 입장으로서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사를 강학이라 칭한다.” 신영일, 「학당의 내적, 외적 현황과 연혁 소개」, 『들불』창간호, 1978. 11.
 - 3) 『들불』창간호는 1978년 11월 20일에 발행되었고, 창간사 1편, 격려사 1편, 시 5편, 수기, 독후감, 편지, 일기 등의 산문 16편, 짧은 정보를 알리는 글 1편, 퀴즈에 가까운 글 1편까지 총 25편의 글과 편집후기가 수록되었다. 『들불』2호는 창간호에 비해 전체적인 편집체제가 더욱 정비된 모습으로 1979년 2월 14일에 발행되었다. 특집으로 실린 ‘故 박기순 강학을 보내며’에는 박기순의 약력과 조사, 지도교수, 사회인사, 강학의 조사와 남학생 조사와 여학생 조사를 비롯하여 대표의 애도시와 3편의 추모사, 강학과 학강의 좌담에 이르기까지 12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이 외에 창간호에 대한 생활문과 일기, 소감문과 서간문, 콩트, 단막극까지 24편의 글이 더해져 총 36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창간호 이후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후 발행한 문집이지만 박기순 추모에 대한 특집을 마련한 것이나 광천천주교회 신도들과 광천시민아파트 청년들의 글도 함께 수록된 점이 특징적이다. 노동야학을 지역운동과 연결시키려는 들불야학의 목표와 방향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문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들불』3호는 1980년 2월에 발행되었고 특집으로 ‘들불1기 졸업’에 관한 글들이 실렸다. 졸업식 행사에 관한 편집부의 글을 포함하여 들불인들의 좌담회, 졸업생의 글과 그들을 보내는 강학들과 후배들의 글 12편이 실렸다. 이 외에 발간사, 행사보고, 들불야학을 바라보는 광천천주교 초등부 학생의 글을 포함하여 6편의 시와 시에 대한 해설 1편이 실렸고, ‘생활하며 느끼며’라는 부제 아래 17편의 글과 2편의 편지글, 2편의 독후감과 편집후기까지 총 44편이 수록되었다.
 - 4) 1978년 6월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에 따른 학생 시위에 동

창립하기 위해 서울 거래터야학 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야학의 방향성과 내용을 구상하였다. 6월 중순 야학 창립에 동참하기로 한 이들은 학습 장소를 정하고, 교재와 교구 등을 만들며 야학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7월 23일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 평균 연령 17세 정도의 노동자들 35명과 강학들 8명이 모여 들불야학 입학식을 거행하였다.⁵⁾ 10평 남짓한 광천시민아파트에서 문을 연 들불야학은 “사랑이 밑받침된 진정한 인간 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문제제기형 교육을 지향하는 노동야학이었다.⁶⁾ 들불야학은 1979년 1월 제2기 입학식, 8월 제3기 입학식, 1980년 2월 제1회 졸업식을 치르며 운영되다가 1980년 5.18을 맞이했다. 들불인들은 5.18 당시 <투사회보>를 만들어 광주 시민들에게 참상을 알렸고, 그들 중 일부는 항쟁에서 희생되었다.⁷⁾ 전국적으로 벌어진 노동야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 운영되다가 1981년 7월 제4기 졸업식을 치른 뒤 폐교하게 되었다. 들불야학은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한 공동체였지만 광주항쟁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이라는 공동체 정신은 5.18민주화운동

참했던 사범대학 학생 박기순은 수학 강학을 맡았다. 그는 대학을 떠나 광천공단 내 ‘동신강건사’에 조립 견습공으로 입사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같은 노동자로 일하며 강학을 꾸려갔다. 그러나 1978년 12월 26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기순의 권유로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참여했던 윤상원은 들불야학 강학, 학강들과 함께 <투사회보>를 제작·배포하여 광주 시민들에게 시위의 진상을 알린 장본인이다. 도청에서 항쟁지도부 대변인을 맡기도 한 윤상원은 도청에서의 최후 항전 중 사망했다. 그리고 1982년 2월 20일 들불야학으로 이어진 박기순과 윤상원 두 열사의 영혼결혼식이 치러졌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23 참조.

5) 신영일, 앞의 글.

6) 위의 글.

7) 강학 김영철은 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복역 중 고문으로 이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1998년 사망했다. 항쟁 기간 중 전남도청 앞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주도한 강학 박관현은 이후 복역 중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전남대 병원에서 1982년 사망했다. 강학 박용준은 항쟁 기간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강학 박효선은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으로 참여했고, 이후 5월을 주제로 한 희곡과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강학 신영일은 투옥 상태에서 5.18진상규명과 교도소 처우 개선을 외치다가 박관현과 함께 단식투쟁을 벌였다. 강학 윤상원은 도청에서 최후 항전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30~36면.

의 정신적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문집 『들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유산이자 1970년대 노동야학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야학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육성이 담긴 자료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노동야학을 다룬 책에서 간략히 소개된 바 있지만 2022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주관으로 『들불』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와 해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물인 『2022년 5.18기록물 학술조사 -들불야학 발간 들불문집 해제정리』를 통해 들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개최한 5.18 43주년 특별기획전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2023.5.9.~ 2023.8.4.)를 통해 들불야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문집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들불야학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적 배움의 장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며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1회 졸업식을 앞두고 열린 「좌담회(정다운 이야기)」(『들불』 3호)를 보면 노동자들이 야학에 대해 지녔던 선입견을 이야기하거나 강학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솔직히 표명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다. “우리들을 교육했던 강학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한 것 같은데, 우리들도 졸업 후에라도 졸업강학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들불야학의 강학이 되려고 왔다면, 좀 더 자주 나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강학들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에 대

8) 정희석,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를 열며 -들불야학 동시대로의 연결과 확장」, 위의 책, 11면.

이 글에 사용된 들불야학 관련 자료인 들불 문집 원문과 특별기획전 자료집 등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제공해 주었다. 문집 『들불』의 인용문은 원본을 참조하였으나 띄어쓰기나 오타자와 같은 명백한 오류는 바로잡아 표기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름은 문집에 공개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름의 일부를 지워 표기했음을 밝힌다. 문집의 페이지는 소실되었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인용시에는 문집의 호만 표기하기로 한다.

들불야학과 문집 『들불』에 관한 내용은 천성호의 『한국야학운동사』(학이시습, 2009.)와 김한수의 『노동야학, 해방의 밤을 꿈꾸다』(따비, 2018.)에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여기 실린 내용 가운데 일부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발행한 자료집과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자료집을 따랐다.

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진술을 보면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만나는 들불야학의 수평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고, 가난하거나 불행한 가정환경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러한 심정의 배경에는 1970년대 한국사회의 현실이 놓여 있다. ‘공순이’라는 비하적 표현이 말해주듯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 계급 안에서도 성적 차별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같은 지식인이나 중산층 여성에 비해 열등한 계층으로 간주되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다는 것과 무식하다는 것을 자기의식의 근저에 각인시켰고⁹⁾ 그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자기를 인식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계급적, 성적 차별을 겪는 하위주체, 다시 말해 스스로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배계층과 남성적 시선에 의해 재현되는 대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야학은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공적 발화의 장이었다. 들불야학이라는 수평적 공동체에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들불』에 실린 글에 나타나듯이 여성 노동자들은 가난한 환경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와 그에 따른 위계적 서열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배우고자 했다. 그들이 지닌 배움에 대한 열망에는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계층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¹⁰⁾ 배우기 위해 야학을 찾아온

9) 김경일,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노동과 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1, 99면.

10) 박해광, 「작업장 이데올로기와 노동자들의 상징적 저항」, 이종구 외, 『1960~19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한울, 2006, 118~123면.

여성 노동자들은 배움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상승의 욕망을 지닌 주체들이었다. 그러나 야학을 매개로 한 배움의 과정과 글쓰기는 그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주체임을 일깨웠고 사회가 욕망하는 바와는 다른 주체 되기를 희망하게 만들었다.

이 논문은 들불야학 문집 『들불』에 수록된 글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이 수치심을 저항의 감정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따라 주체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배우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사회적 질서나 시선에 대한 순응적 태도인 동시에 여성 노동자로 하여금 사회적 언어에 내포된 계급적, 성적 차별과 불평등을 거부하고 저항의 언어로 전환하게 한 동력이었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견인한 1970~8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적, 사회적 각성의 계기로서 자기서사가 지닌 의미도 규명하고자 한다.

2.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

1970~80년대 노동자의 글쓰기는 민중문학의 하위개념인 노동문학의 범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노동자들이 쓴 수기, 자서전, 일기, 편지 등을 아우르는 노동문학은 노동운동의 산물로서 이해되었고¹¹⁾ 노동자의 글쓰기는 계급적 당파성이 분명한 노동해방문학¹²⁾으로 의미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계급성, 당파성은 노동문학의 핵심적

11) 홍정선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민중문학 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백낙청, 채광석, 현준만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민중에 대한 이해가 민중적 지식인의 자각에서 기층 민중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현준만은 「노동문학의 현재적 의미」(1985)에서 실천적인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이 노동문학의 예술적 가치와 미학적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홍정선, 「노동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외국문학』, 1985. 9, 125~127면.

12) 조정환에 따르면 노동해방문학은 “무계급적 민족문학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무당파적 노동문학과도 달라야” 하며 “노동자계급 당파성을 분명히 하고 노동해방사상을 견지하며 노동자계급 현실주의의 방법에 의거”하는 문학으로 정의된다.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노동문학사, 1990, 43면.

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당시 출간된노동자 생활글 모음집을 보면 “경향성, 노동자적 주체성, 문제에 대한 관찰과 기술의 정확성”¹³⁾과 같은 선별 기준이 노동자 글쓰기를 평가하는 실제 기준이었으며 노동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노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글쓰기가 지닌 의미와 문학사적 위상도 변화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노동자 글쓰기가 노동자의 자기재현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노동자 수기는 서술 기법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더 나아가 1970년대 현실을 재현하는 텍스트로서 노동자 스스로 노동을 공적인 활동으로 격상시켰다고 언급되기도 했다.¹⁴⁾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동자의 ‘생활글’이 “문자와 매체를 소유하지 못해 지식인들에 의해 불완전하게 재현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스스로 글을 통해 그 자신을 사회 속에 드러내”는 글쓰기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생활글’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이 ‘글’의 형식을 띠고 사회에 가시화된 일대 ‘사건’”이라는 것이다.¹⁵⁾ 일기나 수기와 같은 노동자들의 글쓰기는 엘리트주의/대중주의의 모순에 의해 구축된 근대문학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민중이 자기재현을 시도함으로써 민중주의를 성취하는 자생적 글쓰기라고 평가되기도 했다.¹⁶⁾ 이처럼 노동자들의 글쓰기는 일기, 수기와 같은 노동자 글쓰기를 문학장에 기입시키며 문학사적 위상을 높여 왔다.

2010년 중반 이후 노동자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여성 노동자들의 글쓰기에도 주목하고 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 수기를 분석한 김양선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로 노동과 삶을 말하고 기억하는 지점이자 70

13) 편집부, 「책을 내면서」,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5면

14)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382면.

15) 한영인, 「글 쓰는 노동자들의 시대」, 『대동문화연구』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23~40면.

16)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문학과 정치’를 보는 다른 관점과 민중문학의 복권」, 『민족문학사연구』4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39면.

년대 여성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서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수기를 분석한 바 있다. 김양선은 수기가 “70년대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공적인 기록물“인 동시에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된 교양과 소비에 대한 양가적 욕망을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개발독재 시대 노동하는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일상 문화, 그리고 이들의 심성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⁷⁾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이란 주제하에 노동자 수기의 수행적 정치성을 논의한 배하은은 순점순, 장남순, 석정남의 수기를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비가사회된 존재였던 여성 노동자의 수기가 “그들에게 정치·사회적인 행위능력, 즉 그 행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잠재력과 그러한 행위 주체로서의 사회적 실존을 부여”했다고 논의하면서 그들의 글이 몸을 생산하는 수행적 힘을 발휘하는 것은 수기의 양식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¹⁸⁾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 논문은 여성 노동자들의 글쓰기가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인 담긴 텍스트이고, 여성 노동자들의 글쓰기가 행위 주체로서 자신을 재정립하는 수행적인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가 수행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수출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노동 조건의 격차가 확대된 시기이다. 직종, 성별, 학력에 따른 산업 부문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노동자 내부의 이질성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 조건과 공장 생활에서의 뚜렷한 성별 이분화는 1970년대 산업화의 한 특징으로 꼽히기도 한다.¹⁹⁾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빈곤과 지식의 문제라는 지적처럼²⁰⁾ 이 시기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하여²¹⁾ 공장에 취업한 여성 노동자

17)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여성문학연구』3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0~11면.

18)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49~156면.

19) 김정일, 앞의 책, 71~72면 참조.

20) 김정일,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 -여성과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73, 역사비평사, 2005, 160면.

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10대 후반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자 형제의 학업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남자 형제의 학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게 된 여성 노동자들이 도시 생활을 통해 개인의식을 지니게 되고 삶에 대한 열망이 남자 형제를 통해 대리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배워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배움의 의지는 새로운 지식과 자기의식을 고양시키는 동력이었고²²⁾ 이것은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지닌 배움에 대한 열망은 노조나 야학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도 노동자의 의식과 지식의 형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조의 목적 등에 관한 지식을, 노조의 소모임에서는 꽃꽂이, 요리 강습, 기타 강습 등 노동자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²³⁾ 노조 외에도 야학, 교회 단체를 통해서 배움의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이를 매개로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교육을 접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여성 노동자들의 배움과 삶이 궁극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부당한 횡포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를 해방의 지식이라 명명한다.²⁴⁾

21) 김원은 이농이라는 소녀들의 선택이 그녀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가족적 요구와 농촌 탈출이라는 자기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이 합쳐진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말한다. 가족의 요구에 따라 학업 대신 공장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선택이 가난과 가부장적 가족 그리고 미래가 없는 농촌의 삶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김원, 『여공 1970』, 이매진, 2005, 199~205면.

22) 위의 글, 160~162면 참조.

23) 노조 소모임이나 교회 단체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앞의 책, 125~140면 참조.

24) 김정일이 말하는 해방의 지식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의 존중과 인간에 대한 배려 ② 노동의 가치와 의미 ③ 권리에 대한 자각 ④ 주체성과 자주성 ⑤ 창의성과 자발성 ⑥ 집단과 공동에 대한 헌신 ⑦ 정의에 대한 지향으로 정리된다. 위의 책, 141~153면.

이 논문은 김경일이 제시한 해방의 지식에 이르는 과정에 여성 노동자들이 ‘나’를 설명하는 글쓰기로서 자기서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자 한다. 야학이라는 공적 발화의 장소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은 하위주체로서 가난하고 못 배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 계층적 상승 욕망을 표출하는 동시에 그러한 차별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저항하는 계기였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공순이’, ‘여공’ 또는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었던 그들이 사회적 호명을 거부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공적 언어를 점유한 남성 지식인 계층의 재현에 맞서 하위주체로서 ‘나’를 설명하는 일이었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나’를 설명한다는 것은 “자아가 이미 사회적 시간성-자신의 서술 능력을 초과하는-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²⁵⁾되는 과정이다. ‘나’를 말하는 자기서사는 ‘나’라는 주체가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규범이나 질서와 같은 사회적인 조건 속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수신하는 ‘너’라는 타인이 있고, ‘나’는 ‘너’와의 관계 맺음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따라서 ‘나’를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말할 수 없는 것을 함유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해 결코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주체는 당연히 윤리적 함의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 없는 존재의 층위에서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자신을 설명하라는 요구에 대한 반응은 주체의 형성이자 동시에 그것이 책임감과 맺는 관계를 헤아리는 문제”가 된다.²⁶⁾

‘나’ 자신에 대한 설명불가능성을 윤리적 주체의 조건으로 보는 버틀러의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는 자신의 서술 능력을 넘어서는 불완전한 글쓰기이며 결국은 실패가 예정된 글쓰기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실패는 글쓰기 주체인 ‘나’가 타자와 연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대화적 말하기의 구조²⁷⁾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25)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18면.

26) 위의 책, 232면.

는 점을 드러나게 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를 논의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노동자 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여성 노동자 수기들이²⁸⁾ 보여준 인식이나 미학적 수준을 여성 노동자 글쓰기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이다. 1980년대 출간된 여성 노동자 수기들은 “양식과 미학의 질서 및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학적 감수성의 혁명”²⁹⁾이라고 평가되었고 노동문학의 대표성을 획득함으로써 문학장 안으로 기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글쓰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의 글쓰기를 논의할 때 필요한 건 노동자 글쓰기의 전범과 전형성을 벗어나 그들의 글쓰기가 “‘완전히 순수한 그들만의 언어’로 쓰이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감안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재현할 때 발생하는 여러 상호 작용들과 그 사이의 균열을 포착하는 것이다.³⁰⁾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는 안정되고 매끄러운 서사를 이어가는 논리 정연한 글쓰기가 아니라 “쉽게 서사 형식으로 번역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집합을 통해”³¹⁾ 자신이 처한 탈구 위치(dislocation)³²⁾를

27) 이는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말걸기의 구조’를 염두한 표현이다. 버틀러는 말걸기의 구조가 서사의 한 특질이 아니라 서사의 방해 내지 차단이라고 설명한다.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들리지게 될 때 서사적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수사적 차원을 떠맡는다. 즉 나의 설명이 시작될 때 무언가가 언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버틀러는 그것이 대화적이고, 유령처럼 출몰하고, 무언가를 적재하고, 설득적이고 전술적이며 오직 관계적 차원으로서의 언어를 실행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의 책, 111~112면.

28)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형성사, 1982),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일월서각, 1984),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창작과비평사, 1984)는 출간 이후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민족·민중문학 진영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노동운동의 필독서로 꼽혔다.

29) 배하은, 위의 글, 134면.

30) 이지연, 「1970년대 ‘여공’의 욕망과 문학적 재현의 문제」, 『구보학보』31, 구보학회, 2022, 377~378면 참조.

31)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13면.

32) 사회학적으로 혼란, 변화, 이탈, 분절과 연결되는 개념인 탈구는 주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게 만드는 주체의 위치이다.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 사례를 연구한 살레냐 파레냐스는 그들의 불완전한 시민권, 가족과의 별거로 인한 정서적 고통, 사회적 지위 하향으로 인한 모순적인 계급이동,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인한 무소속감 등을 탈구위치(dislocation)의 특징으로 지적했다. 파레냐스는 탈구위치에서 구성된 주체는 그것에 종속된 동

벗어나고자 하는 글쓰기였기 때문이다.

3. 수치심을 넘어 고통을 말하는 주체로

『들불』에는 시와 마당극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이다. 야학의 교사들은 읽고 쓰는 경험이 많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 내용과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을 쓰도록 권했는데,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운 글쓰기는 자기고백적인 글쓰기로 이어졌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일은 내면의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과 대면하는 일이었다. 야학의 문집에 실을 글을 쓴다는 것은 야학에 오게 된 이유, 즉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신의 처지와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창 시절 글쓰기를 즐겨했던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글쓰기는 어렵고 불편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① 글을 한 가지씩 써 보라는 우리 강학님들의 말씀에 머리 먼저 무거워지더군요. 어떤 글을 써야될지? 고심중에 아! 하고 떠오르는게 있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한 번쯤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 기회를 통해 글로 써 전해보고자 생각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 글을 쓴 자신도 그러한 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에 제 자신을 먼 훗날 후회없는 과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을 해 봅시다. (송○숙, 「근로 청소년 여러분에게」, 『들불』 창간호)

②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기순이 언니가 쓰라던 문집 원고 안 쓰겠다고 떼 썼더니 결국 쓰게 되는군

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주체임을 강조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이 구성된 과정인 탈구위치를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탈구위치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문현아 옮김,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

요. 문집을 쓰게 하려고 돌아가셨나요? 이제 와서 언니 생각이 더욱 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원고 왜 안쓰느냐고 물으실 때 그냥 안쓰겠다 했더니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쓰고 싶어질 것이라며 보라고 권하셨지만 보지 않았습시다. 언니가 바라시던 걸 못해드려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심, 「기순 언니와의 몇 개월」, 『들불』 2호)

③ 하루하루를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다보니 글이란 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 같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머리만 어지러울 뿐 정리가 되질 않는다. 이 글을 읽고 비웃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창피한 마음 때문에 망설여진다. 새삼 지나온 나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려고 하니 마음 깊은 곳엔 공허감이 맴돈다. (김○숙, 「지나온 나날들」, 『들불』 3호)

위 인용문들을 보면 노동자들의 글쓰기는 강학들의 권유에서 비롯되었고, 처음부터 노동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들이 글쓰기를 거부했던 이유에는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불편함, 두려움, 창피함이다. 이러한 감정은 글쓰기가 자신을 공적 영역에 드러내는 일이란 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여성 노동자들이 공적 영역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기저에는 자신이 남들보다 배우지 못한 존재라는 수치심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느낀 배우지 못한 자,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수치심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성 노동자들을 ‘산업역군’이라 칭하는 동시에 ‘공순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했다. ‘공순이’라는 말에는 노동자 계급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당시 소설과 신문 매체 등을 통해 확산된 ‘공순이’의 이미지는 지식인들의 고급스런 취향과는 지극히 다른 대중적인 문화적 취향과 소비 감각을 지녔으며,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면이 강조된 신체적 특징을 지닌 여성이었다.³³⁾ 지식인 계층의 남성적 시선

33) 1979년 1월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한수산의 「달이 뜨면 가리라」 도입부에는 ‘공순이’를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이 묘사되어 있다. 작가는 등장인물 민재의 눈에 비친 여성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무래도 조금 피부가 검

으로 재현된 ‘공순이’는 지성은 결핍되었으나 욕망에 충실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란 이미지를 내포한 말이었다. “공순이라는 그들에 대한 경멸적인 호칭은 ‘공순이-타락한 여성’이라는 문화적 맥락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공순이는 남성이 쉽게 유혹할 수 있고,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인 존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을 의미했다.”³⁴⁾ “공장 지대에 처녀란 단 한명도 없다”는 소문이 여성 노동자들이 살고 있던 공장 지대에 돌았다는 말³⁵⁾이 함축하고 있듯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는 성적 차별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순이’란 표현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1979년 한 기사는 “기름때 묻은 공순이 공돌이의 손에 책가방이 쥐어졌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공순이’와 ‘공돌이’는 “불우한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을 못했거나 학업을 중도에 초기해야 했던 이들”로 소개되었다.³⁶⁾ 또 다른 기사에서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처럼 생산직종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관계나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다.”³⁷⁾는 문장도 발견되는데, ‘공순이’, ‘공돌이’란 명명이 어린 나이에 생산직종에 취업한 노동자에 대한 비하적 의미임을 알면서도 사회는 공공연히 그들을 ‘공순이’로 호명했다.

한국의 여공 문학을 연구한 루스 배러클러프는 노동자 수기나 생활글 등에는 떨시에 찬 ‘공순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괴로움이 빈번히 나타난다고 지적한다.³⁸⁾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노동자

거나 거칠고, 손도 그만큼 거칠기 십상인데다 체구에 비해 대체로 큰 젓가슴을 가졌고, 조영남이나 최백호보다는 송대관이나 나훈아의 노래를 조금 더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편안한 잠을 그리워하며, 영등포의 재개봉 영화관에서 애인을 만 들어 가질 줄도 알고 있는, 가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 가난을 적(敵)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복합색보다는 원색(原色)의 스웨터를 좋아해서 촌스럽다는 누명을 쉽게 벗지 못하”는 존재. 이 대목은 여성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남성적 시선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서술되었는데, 여성 노동자는 지적으로 열등하고 저급한 취향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한수산, 『달이 뜨면 가리라』, 고려원, 1986, 14면.

34) 루스 배러클러프, 김원·노지승 옮김, 『여공 문학』, 후마니타스, 2017, 183면.

35)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철수와 영화, 2020, 44면.

36) 「기름손에 향학의 책가방 수출공단 종업원 합동 취학식」, 『동아일보』, 1979. 4. 11.

37) 「오늘의 노사관계」, 『조선일보』 1979. 8. 23.

로 계급이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박탈감을 경험한 10대 후반의 여성 노동자들을 ‘공순이’로 호명될 때 강렬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들의 글에서 역력히 표출된다.

④ 배우겠다고 모여드는 저희들에게도 배움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비웃는 얼굴들… 하나, 둘, 자신을 잃어가는 학생들…

숨사탕처럼 부푼 나의 꿈도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바닷가에 모래성처럼 이제는 서서히 쓰러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밤 수업을 마치고 피곤함과 함께 무거운 발길로 집을 향하여 바쁜 걸음을 옮길 때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어느 남고생이 한다는 한마디 “인자사 배우러 다니는가?” 당황한 나머지 말의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옆에 끼고 있는 책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기분에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머나먼 대지를 향하여 한없이 한없이 소리치며 달려가고 싶었습니다.(이○주, 『용기와 사랑으로 이 삶을…』, 『들불』 창간호)

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못 배운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풀이 죽어 보인다. 그러기에 난 한자라도 배우려고 노력해 왔으며 지금 들불 야학에 다니고 있다. 야학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고 막상 들어오려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도 거리낌없이 학당에 나오고 있다. (중략) 그때 잘못 생각하여 만일 학당을 그만뒀다면 난 지금쯤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틀에 박힌 직장 생활로 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학당에 나와서 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를 알 수 있었고 내 자신의 속마음을 나타낼 수 있었으며 강학님과 대화 속에서도 난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다.(박○자, 『인간과 삶』, 『들불』 3호)

임흥빈에 따르면 수치심은 자기반성적인 행위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원이 간과될 수는 없는 감정이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발현되기 때문이다.³⁹⁾ 위의 글에서도 수치심이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는 자신의 마음속에

38) 루스 배러클러프, 이일수 옮김,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창작과비평』, 2005년 봄호, 291면 참조.

39) 임흥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222~223면.

자리한 깊은 수치심을 드러낸 글이고, ⑤는 야학에 다니면서 수치심을 극복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글이다.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들을 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인식이다. 즉 수치심의 출처는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과 태도인 것이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세상이 배우지 못한 자신을 놀리고 비웃으리라는 생각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풀이 죽어 보인다는 생각 모두 노동자로서의 자신을 향한 타인의 감정을 떠올림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프레데리크 그로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심은 인간의 타락을 마주하고 지켜 봐야 하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고통스러운 시련이다. 그런데 그것은 분노와 달리 결국 힘이 되는 곁걸한 노여움이고, 인간을 양심 한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는 태도이다.⁴⁰⁾ 수치심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자신을 갉아먹는 분노가 되어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집단적 분노, 방향을 띤 분노의 형태를 취하면서 정화되고 승화될 수 있다.”⁴¹⁾ 그는 세상과 자기자신을 향한 분노에 속하는 수치심이 혁명적일 수 있다고 논의하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나쁜 상상력이 아니라 좋은 상상력으로 나아간다면 정체성을 다시 지어내고 연대의식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⁴²⁾ 이렇게 볼 때, 여성 노동자들이 드러내는 수치심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개인의 출세가 아닌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야학은 수치심이란 감정을 자기를 향한 폭력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향해 분노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야학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장소였다.

“처음에는 강학이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안 좋은 인상을 받아 학당을 그만 두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⁴³⁾ 라는 고백처럼 야학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는 불온한 곳이라는 소문 때문에 경계심을 갖기도 했지만 ⑤의 진술처럼 학생들은 강학들과의

40) 프레데리크 그로, 백선희 옮김, 『수치심은 혁명적 감정이다』, 책세상, 2024, 239면.

41) 위의 책, 242면.

42) 위의 책, 243면.

43) 이○심, 「좌담회(정다운 이야기)」, 『들불』 3호.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으며 점차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개인적 출세보다는 인간적 도리와 정의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⑥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을까? 또한 우리들은 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진다. 처음 광천 들불야학 학생 모집 포스터를 봤을 때 나는 많이 생각하고 망설였다. 마음 속으론 배우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생활을 하다보면 아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말이 막힐 때 그 얼마나 배움이라는 걸 갈망했던가? (김○숙, 「지나온 나날들」부분, 『들불』 3호)

야학에서의 글쓰기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을 향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직면하는 계기였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포착되지 않도록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수치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을 비하하는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며 마침내 그 시선의 정당성을 묻기에 이른다. 위 인용문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사실상 나이가 많고 배움이 부족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로 나뉜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상실된 사회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자신이 그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데서 필자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배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수치심의 두 층위가 뒤섞여 있는 셈인데, 하나는 사회적 멸시를 내적으로 투사하는 데서 생기는 수치심이고 다른 하나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거부하며 “불공정한 가치 체계를 그렇게 쉽게 지지한 자신, 배신한 자신에 대한 분노다.”⁴⁴⁾ 이러한 분노야말로 출세를 향한 욕망보다 더 본질적인 배움의 열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이다.

이처럼 차별적인 사회/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경험하는 수치심을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전환하고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자기서사라는 글쓰기가 놓여 있다. 폴 리콕르는 자

44) 프레데리크 그로, 앞의 책, 62~66면.

기성을 “사유의 자기 확실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자기 언어에 의해, 자기 행위에 의해, 그리고 자기 이야기에 의해 규정”⁴⁵⁾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자기서사의 주체는 자신의 경험과 속마음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주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윤리적 힘을 제 고유의 본질 속에 지”⁴⁶⁾킬 수 있도록 만드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들불야학의 여성 노동자들은 자기서사를 통해, ‘공순이’라고 호명되는 열등한 하위주체가 아니라 “비록 십 칠 년간은 헛되이 살았지만 나머지 시간은 가장 인간답고 지혜롭게 메꾸어 가야겠다고”⁴⁷⁾ 다짐하는 자기해방적인 삶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배움에 대한 동기도 질적으로 변화되는데, 배움은 단지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도달하게 된 것은 고통의 근원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스스로 말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자신이었다.

4.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적 주체로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는 일은 자신을 향한 사회적 시선에 저항하며 그 시선의 부당함과 불평등을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행위가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일련의 규범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나를 둘러싼 규범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물음은 자기다움의 확인이나 자기 성찰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체를 규율하는 규범들에 대한 숙고 혹은 거리두기가 되는 것이다.⁴⁸⁾ 『들불』에 실린 여성 노동자의 자기서사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 제기

45)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303면.

46) 프레데리크 그로, 앞의 책, 157면.

47) 박○숙, 「십칠년 동안의 나의 생활」, 『들불』 창간호.

4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8~21면.

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야 했던 글쓰기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들불야학의 노동자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노동자로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과 연대 의식으로 모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들불야학이라는 장소가 있었다. 한국 사회의 모순과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억압적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획득하는 교육을 지향한 강학들의 목적의식⁴⁹⁾도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수업 방식도 여성 노동자들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였다. 들불야학에서는 철저한 토론 수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유를 유도했다. 노동자들은 그룹별로 논쟁하고 결론을 도출한 뒤 이것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교육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호기심을 떠나서 완전히 그 교육방식 자체에 매료되었다. 난 현장 노동자였는데 소위 말하는 공돌이. 누가 나 같은 공돌이에게 사회 전반의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도록 기회를 주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열린 교육, 해방 교육이 됐다. 이 시스템은 현재 대한민국에 없다. 강학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내 주장만 계속하면 결론이 안 난다. 친구 말이 일리가 있고 내 생각이 틀리네. 이런 인정의 과정이 자연스러웠다. 불과 3~4개월만의 일이었다.⁵⁰⁾

노동자들이 토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일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야학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사회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그로부터 희열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됨으로써 그들은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이의 의견을 인정해줌으로써 자신도 존중

49) 들불야학을 창립하기 전 교사들은 준비 모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1.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전반적 상황의 인식 2. 그 안에 내재된 모순의 분석 3. 학생으로서의 역할 수행” 신영일, 「학당의 내적, 외적 현황과 연혁 소개」, 『들불』 창간호.

50) 나명관, 「들불야학 인물 인터뷰」,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46~47면.

받는 토론의 기본 원리는 계급에 상관없이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었다.⁵¹⁾ 그 결실은 인간으로서 평등을 요구하는 글쓰기를 통해 나타난다.

① 호화주택 앞을 지나갈 때 이런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인데도 사람들은 평등하지 못할까? (노○란, 『만족을 느끼며』, 『들불』 창간호)

② 나도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 아니 나만이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한다. 사회는 왜 명예를 내세우는 것일까? 학교도 많이 나온 사람들은 월급이 많다. 그렇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아 학벌없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그와 정반대이다. 월급도 적고 인간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왜 사회는 이렇게 규정되었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낀다. 그건 내가 학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다운 인간 학벌이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다울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자, 『왜 사회는?』, 『들불』 창간호)

③ 들불에 모인 분들은 못가진 자들 사회에 억눌림 받고 천대받은 뜻이 같은 분들 뜻이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올바르게 될 거예요. 결국 가진자들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 노력해 올바른 사회가 되길 노력합니다. (노○란, 『학당을 떠나면서』, 『들불』 3호)

들불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대적 빈곤과 사회의 멸시 때문이다. 인용문 ①에서는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운명을 가진 존재인데 왜 누구는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의문시하며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음을 제기한다. ②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학벌주의가 실질적인 임금과 대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자신이 처한 불평등이

51) 학생과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들이 프레이리의 교육론을 받아들여 처음부터 공유했던 ‘문제제기형 교육’의 방향이기도 했다. 신영일, 앞의 글 참조.

학벌이라는 외적 기준 아래 놓여 있는 근본적인 구조의 모순임을 자각하고 있다. ③은 배움을 통해 불평등한 삶을 극복해보고자 했으나 그것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글쓴이는 사회를 바뀌어나가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도 덧붙인다. 온건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변혁해나가야 한다는 주체적 태도가 분명히 나타난다. 세 편의 인용문은 자신들이 힘겹게 노동을 하는데도 빈곤과 멸시에 시달리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 때문이며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운명이나 팔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자각하며 그것을 변화시킬 주체 역시 자신들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정치적 주체로서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자각의 배경에는 1970년대 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극에 달한 한국 사회의 현실과⁵²⁾ 들불야학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1979년 12월 26일 박기순의 죽음은 들불야학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슬픔만이 아니라 야학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연대감을 안겨준 계기이기도 하다.

④ 언니는 항상 이걸 주장하셨죠. 「우리의 것을 찾자고, 정의에 살자고」 하시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언니가 운명을 달리 하던 날...

(중략) 우리를 위하여 분골쇄신해 오신 언니의 넋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밀려 오는 슬픔을 강박하면서 언니의 넋이 깃들고 언니의 산 교훈이 깃든 이 들불 야학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자, 「언니에게 띄우는 글」, 『들불』 2호)

⑤ 나는 언니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철부지인 나에게 사회의 내막이며

52) 전순옥은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은 부마 시민봉기가 계기였음을 지적하며, 부마 시민봉기의 원인인 김영삼 축출이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관되어 있음을 중요하게 본다. 전순옥, 『끝나지 않는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347~348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로 인해서 나는 무척 성장을 했으며 잊을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우리 함께 외롭고 피로움을 함께 견디어 나갑시다. 언젠가는 행복 속에 축복이 올 것입니다. 언니와 내가 만난지는 몇 십년이 되지는 않지만 헤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만남을 기다려야 하는 까닭은 언니와 나 사이에 정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희, 「순 언니에게」, 『들불』 3호)

들불야학의 실질적 창립자이자 강학이었던 박기순의 죽음을 경험한 후 여성 노동자들이 야학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글들이다. 박기순의 죽음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슬픔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나누게 만든 계기였던 것이다. 대학생 신분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되어 노동자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쳤던 박기순은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남은 자들은 박기순이 말하려고 했던 것들, 박기순이 꿈꾸었던 들불의 이상을 상상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했다. 여대생의 전형성을 넘어서서 교사이기 이전에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노동자가 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박기순⁵³⁾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소탈하고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들불야학이 지향하는 정신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글쓰기에서 강조하는 들불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수렴되는 데에는 박기순의 영향이 컸다. 들불야학에서 박기순이라는 존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령이 출몰하듯 무시로 환기되거나 또는 편지의 수신인이거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는 방식으로 박기순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며 공동체에 속한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절대적 타자였다.⁵⁴⁾

53) 『들불』 2호 특집에서 임낙평은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남겼다. “처음 만났을 때 한 여자로서, 여대생으로서의 옷차림에서 희의를 느꼈던 많은 학생들도, 다른 사람들도 소탈하고, 꾸밈이 없고, 어딘가 모르게 인정이 넘치는 서민 인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농민의 딸로서 자라온 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대학을 뛰쳐 나온 대학생으로서 대학생이 아니었으며, 여대생으로서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강학 임낙평, 「故 박기순 동료를 생각하며」, 『들불』 2호.

54)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111~112면.

⑥ 학벌과 권세를 중요시하는 사회를 깨뜨리고 사랑과 평등이 유지되는 사회로 우리 힘껏 노력합시다. (중략) 때론 우리의 힘과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서슴치 말고 찾아주세요. 우리의 들불문은 항상 일기생 여러분을 뜨겁게 맞이할 것입니다. (정○란, 「보내는 마음의 글」, 『들불』 3호)

⑦ 배움터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뜨거운 사랑이 깃든 학당에 들어섰다. 모두들 추위 속을 헤치면서 왔지만 그곳에 모인 천사들의 얼굴에는 티없는 해맑은 미소와 따뜻함이 한 아름 담겨 있다. (중략) 우리들의 인생도 저 타버린 모닥불과 같은 것. 진정한 우정과 뜨거운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며 우리 천사들은 마음 하나가 된다. 우린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 아닌가. 서로 상대를 위로하며 ‘다가올 인생들을 열심히 살겠다는 신념이 나의 가슴속에 깊이 와 닿는다. 우리는 마치 저 들판에 피어 오른다. 우리는 들판에 피어 오르는 모닥불 같은 것. 우리는 모닥불처럼, 모닥불 모닥불 모닥불…… 모닥불과 같은 것…… (정○란, 「모닥불」부분, 『들불』 3호)

⑧ 우리들은 잃어버린 사회를 바로 잡을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길. 화려하고 가슴 부풀은 길. 배우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자리를 같이 해주시며 시간과 세월이 흘러 머리가 쇠퇴해져 망설이는 우리를 사랑과 대화로써 설득하여 자리를 같이 하는 당신들은 이 험악한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인간들입니다. (정○희, 「우리들의 앞길에」부분, 『들불』 3호)

위 인용문에서 언급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과 평등한 존재를 향한 포용적인 감정이다. 서로를 향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들불의 노동자들이 바라는 들불 공동체의 모습이였다. 모닥불처럼 정해지지 않은 모습으로 타오르지만 한데 뒤섞임으로써 더 큰 불꽃으로 이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 그들은 이미 말하는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모닥불이라는 비유는, 버틀러가 말했던 바 한 개인이 아닌 신체들이 모여 복수의 형태로 그들 존재를 상연하는 장면을 연상하게도 하는데 이는 정의에 대한 요구가 개별적 차원의 요구를 넘어서서 보다 넓은 차원의 요구로 나아감을 이미지화한다.⁵⁵⁾

55) 주디스 버틀러, 김웅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들불의 여성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인간적인 대우’로 요약할 수 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도 문제였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를 향해 요구했던 것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고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이었다. 버틀러의 지적처럼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적, 성적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보다 넓은 정치적 문제에 연루시키는 문제였기 때문이다.⁵⁶⁾

⑨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과연 뭣을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나를 알면서 말이다. 나는 들불에 와서 슬픔을 알았다.

얇은 기쁜 것만이 아니다. 어떠한 모순 속의 불순물을 알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알았을 때 심히 괴로운 것이다. 옳다는 것을 알면서 과감히 행동하지 못한, 용기 없는 나를 얼마나 비관했는가! (중략) 하지만 지금은 배움의 욕망보다 배움의 필요성을 알았다. 학력의 지배 사회에서 나의 낮은 계층을 느끼고 당할 땐 정말 가슴 아프다. 관념적인 지식보다는 인간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다.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조○임, 「아! 1년 6개월 들불과 나의 만남」부분, 『들불』 3호)

1기 입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쓴 이 글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쓰기가 결국 실패에 이르는 과정이며, 글쓰기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사회적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임을 확연히 보여준다. 글쓰기는 얇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배움이 개인의 출세를 위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을 배움으로써 세계,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한다.

일 년 반 동안의 학교생활을 마치며 글쓴이가 고백한 것은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과 둘째, 거대한 사회적 모순 앞에

2020.

56) 버틀러는 “나의 혹은 너의 취약성이라는 쟁점은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보다 넓은 정치적 문제에 우리를 연루시킨다”고 지적하면 “바로 이것이 취약성의 불평등한 할당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책, 297면.

선 자신이다. 이것은 슬픔과 분노가 혼합된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⁵⁷⁾ 다가오지만 이는 다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버틀러의 논의를 참조하면 글쓰기 주체는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불투명성이 자신과 연관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더 단단하게 ‘나’와 ‘너’를 묶어줄 관계성을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버틀러는 자아를 조건 짓고 무색하게 만드는 이 관계성이 꼭 있어야 할 윤리의 출처가 아닌가를 묻는다.⁵⁸⁾ 그런데 위 인용문의 필자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나’를 넘어서서 정치적 주체로 나아간다. “학력의 지배 사회에서 나의 낮은 계층을 느끼고 당할 땐 정말 가슴 아프다”는 진술이나 “인간적인 지식을 배”움으로써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는 진술은 지배와 피지배 계층으로 서열화된 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식을 통해 지배와 피지배 구조에서 형성된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다. 배움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가 그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몫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는 그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5. 맺음말

1978년 광주에서 문을 연 들불야학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투사회보>를 제작·유포한 노동야학이다. 들불야학은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한 공동체였지만 광주항쟁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이라는 공동체 정신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들불야학에서 펴낸 세 권의 문집 『들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유산이자 1970년대 노동야학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노동자들의 육

57) 프레데리크 그로는 수치심은 슬픔과 분노의 혼합물이라고 진술하면서 우리가 수치심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수치심을 지렛대로 삼아 파괴적 슬픔을 걸러내고 순수한 분노만 남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순수한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감정이다. 프레데리크 그로, 앞의 책, 16-17면.

58)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72~72면.

성을 들을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논문은 문집 『들불』에 수록된 여성 노동자들의 글쓰기를 분석하면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 자기서사의 주체가 윤리적, 정치적 주체로 이행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1970년대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계급적, 성적 차별의 대상이었다. 학벌주의 사회에서 배움이 부족한 그들은 못 배우고 열등한 존재로 재현되었는데,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며 수치심을 느꼈고 그로 인한 고통을 글로 표출했다. 그러나 그들은 야학생들과 글쓰기를 계기로 수치심이 사회의 부당한 차별임을 자각해나간다. ‘공순이’라는 호명을 거부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들은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비판하며 배움을 통해 그들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들불』을 통해 살펴본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는 1970년대 노동자 글쓰기 연구가 강조해온 계급적 이념이나 노동해방에 대한 열망을 담은 글이라기보다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한 공통적 감정인 수치심을 공적 언어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을 포착하고 언어화하며 대면함으로써 수치심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수치심을 환기하는 글쓰기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수치심의 기원이 사회적 차별에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자신이 느낀 수치심을 사회에 대한 분노로 전환하고 정의와 평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서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주체로서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였다.

[Abstract]

A Study of the Self-Narrative of Female Workers in *Deulbulyahak*

Jang, Eun young(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writings of female workers included in the anthology *Deulbul*, within the context of self-narrative. *Deulbulyahak*, which opened in 1978 in Gwangju, is known as the first labor night school in Gwangju and as the organization that produced and distributed the bulletin "Tusaehwebo" to Gwangju citizens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anthology *Deulbul*, containing writings by workers attending the night school, serves as a resource to trace changes in perception and motivations for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workers of that period. This study examines the writings of female workers in the first three issues of *Deulbul*, exploring the moments and processes through which they transformed into ethical and political subjects via self-narrative.

The self-narratives of female workers as examined through *Deulbul* focused more on articulating the common emotion of shame experienced by female workers in a public language, rather than expressing class-based ideologies or aspirations for labor liberation, which have been emphasized in studies of worker writing in the 1970s. They captured, verbalized, and confronted the moments when they felt shame, transforming it into other emotions. Although writing that evoked shame was an uncomfortable and painful process, they were able to overcome

it by discovering that the origin of their shame lay in social discrimination. Furthermore, by transforming their felt shame into anger towards society and demanding justice and equality, the self-narratives of female workers signify writing as a means of discovering the "self" as a political subject capable of transforming society.

Key words : Deulbulyahak, *Deulbul*, Nodong Yahak, Female Workers, Gongsunyi, Self-Narrative, shame, equality

[참고문헌]

□ 기본자료

『들불』 창간호, 1978. 11.

『들불』 2호, 1979. 2.

『들불』 3호, 1980. 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22년 5.18 기록물 학술조사 -들불야학 발간 들불문집 해제 정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2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자료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023.

□ 단행본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80년대 노동자 생활글 모음』, 돌베개, 1986.

김경일,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노동과 여성』,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김 원, 『여공 1970』, 이매진, 2005.

김한수, 『노동야학, 해방을 꿈꾸다』, 따비, 2018.

신승엽, 『노동문학의 현단계』, 『문학예술운동1』, 풀빛, 1988.

이종구 외, 『1960~19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한울, 2006.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전순옥, 『끝나지 않는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조정환, 『노동해방 문학의 논리』, 노동문학사, 1990.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2009.

한수산, 『달이 뜨면 가리라』, 고려원, 1986.

루스 배러클러프, 김원·노지승 옮김, 『여공 문학』, 후마니타스, 2017.

라셀 살라자르 파레나스, 문현아 옮김,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_____,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프레데리크 그로, 백선희 옮김, 『수치심은 혁명적 감정이다』, 책세상, 2024.

□ 논문 및 기타 자료

- 김경민, 「70년대 노동소설에 재현된 정형화된 이미지로서의 여성노동자」, 『대중서사연구』21(2), 대중서사학회, 2015.
- 김경일,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 -여성과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3, 역사비평사, 2005.
-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여성문학연구』3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 김 원, 「1979년, 그녀들의 선택 -YH노동조합 신민당사 농성」, 『역사비평』 통권 128호, 2019년 가을호.
-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지연, 「1970년대 ‘여공’의 욕망과 문학적 재현의 문제 -한수산의 『달이 뜨면 가리라』를 중심으로」, 『구보학보』31, 구보학회, 2022.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문학과 정치’를 보는 다른 관점과 민중문학의 복권」, 『민족문학사연구』4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 한영인, 「글 쓰는 노동자들의 시대」, 『대동문화연구』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루스 배러클러프, 이일수 옮김,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창작과비평』, 2005년 봄호.